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요한복음 6 주차 (4:1-4:38)

(2015년 3월 1일 - 2015년 3월 7일)

(제3권 5호)



Missions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B2B** 3 권 -6 호

창간일: 2014 년 11 월 2 일

발간일: 2015 년 3 월 1 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한글

헬라이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th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IGARTENSIA (1997)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Progra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4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마실 것을 주십시오 (일요일)

오늘의 본문 (요 4:1~8)

1.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2.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3.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4.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5.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6.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육시쯤 되었더라
7.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8.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원문해석하기

- (1절) 예수님이 요한보다 더 많은 제자들을 만들고 세례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게 됨에 따라
(Ὡς οὖν ἔγνω ὁ Ἰησοῦς ὅτι ἤκουσαν οἱ Φαρισαῖοι ὅτι Ἰησοῦς πλείονας μαθητὰς ποιεῖ καὶ βαπτίζει ἢ Ἰωάννης)
- (2절) 그러나 예수님이 아직 세례를 주시지 아니하시고 그의 제자들이 하였습니다
(καίτοιγε Ἰησοῦς αὐτὸς οὐκ ἐβάπτισεν ἀλλ' οἱ μαθηταὶ αὐτοῦ-)
- (3절) 그가 유대땅을 버려 두시고 다시 갈릴리로 들어가셨습니다
(ἀφῆκεν τὴν Ἰουδαίαν καὶ ἀπῆλθεν πάλιν εἰς τὴν Γαλιλαίαν.)
- (4절) 그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셔야만 했습니다 (Ἔδει δὲ αὐτὸν διέρχεσθαι διὰ τῆς Σαμαρείας.)
- (5절) 그래서 그가 수가라는 사마리아 한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ἔρχεται οὖν εἰς πόλιν τῆς Σαμαρείας λεγομένην Συχάρ)
[그 마을은]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πλησίον τοῦ χωρίου ὃ ἔδωκεν Ἰακώβ [τῷ] Ἰωσήφ τῷ υἱῷ αὐτοῦ.)
- (6절) 그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ἦν δὲ ἐκεῖ πηγὴ τοῦ Ἰακώβ.)
그런데 예수님이 여행길에 지치셔서 (ὁ οὖν Ἰησοῦς κεκοπιακῶς ἐκ τῆς ὁδοιπορίας)
그래서 그 우물 위에 앉으셨습니다 (ἐκαθέζετο οὕτως ἐπὶ τῇ πηγῇ.)
시간은 거의 여섯 (번쩍)시였습니다 (ὥρα ἦν ὡς ἕκτη.)
- (7절) 사마리아로부터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ἔρχεται γυνὴ ἐκ τῆς Σαμαρείας ἀντλήσασα ὕδωρ.)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ῇ ὁ Ἰησοῦς-)
“나에게 마실 것을 주십시오” (δός μοι πᾶν.)
- (8절) 왜냐하면 그의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마을로 떠났기 때문입니다
(οἱ γὰρ μαθηταὶ αὐτοῦ ἀπεληλύθεισαν εἰς τὴν πόλιν ἵνα τροφὰς ἀγοράσουσιν.)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는 여정 중에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한 여인을 만나서 그를 통해 메시아를 기다리던 많은 사마리아인들을 자신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대인들 간에 역사적으로 얽히고 설킨 애증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당신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5절을 읽으십시오. “그래서 그가 수가라는 사마리아 한 마을로 들어갔습니다.[그 마을은]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한글 성경은 ‘그래서’라는 접속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쓰인 ‘그래서’(헬라어로 호운, οὕτως)라는 단어는 앞서 일어난 사건이 원인이 되어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일행은 반드시 사마리아로 들어가셔야 했고 그 결과로(therefore, so) 수가라는 마을로 들어가시게 된 거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일은 노정 중에 어찌다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계획된 일이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한 일은 반드시 실행하시며 한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삶 속에서 자신이 기대했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때 실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기대했던 일이 결코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 아니었음을 드러내는 방증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신다는 사실에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5절은 수가라는 마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은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유래는 창세기 48장 22절에 나옵니다. 야곱(이스라엘)이 그 아들 요셉에게 이렇게 유언합니다.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겔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창 48:22).

이 이야기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이스라엘의 지파들은 가나안 정복 이후에 자신들의 땅을 제비 뽑아 분배받게 되는데 유독 요셉(이후 에브라임 지파)에게만 야곱 때에 땅이 미리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이 창세기의 기록을 근거로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셉은 이 땅에 묻힙니다. 여호수아서는 요셉의 무덤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 온 요셉의 뼈를 세겔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 크시타를 주고 세겔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의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수 24:32).

이 땅을 야곱이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사실은 창세기 33장 19-20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요셉에 묻혔으며 요셉의 무덤 바로 근처에 야곱이 팔다는 우물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가라는 동네는 에브라임 족속의 중심부였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반드시 이곳으로 가셔야 했을까요? 단순히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 그랬다고 보기에는 무언가 석연찮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의 역사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6절을 먼저 읽으십시오. “그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행길에 지쳐서 그 우물 위에 앉으셨습니다. 시간은 거의 여섯(번재)시였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장소는 야곱의 우물이고 시간은 여섯째시(낮 12시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 야곱의 우물가에 앉으신 이유는 여행길에 지쳤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성을 지니셨기 때문에 지치셨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을 단지 그분의 인성과 연결시키기 보다는 이어지는 사건을 설명하기 위한 일종의 복선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예수님은 예전의 북이스라엘의 중심지로 가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솔로몬 왕 사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대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됩니다. 그 뒤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고 끊임없이 남유대와 서로 대립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앗수르에 멸망 당하고 후에 남유다는 바벨로니아에 멸망 당합니다. 그때마다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특히 북이스라엘에 행한 앗수르의 식민 정책은 훨씬 더 악랄하고 가혹했습니다. 그들은 민족 혼합 정책을 써서 북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말살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소포타미아 여러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키고 그 지역 사람들을 북이스라엘 땅으로 이주시켜 이스라엘 사람들과 강제로 혼인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스스로를 이스라엘 민족이라 부를 수도 없는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시대에 ‘사마리아인’으로서 그들이 갖고 있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남유대)들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형제는커녕 이방인보다 더 못한 존재로 취급하며 무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직접 찾아가신 것은 그런 역사적인 상처를 치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단지 수가성에 사는 여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간 것이 아니라 구약을 완성하기 위해 방문하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난 시각은 제 6시였습니다. 당시에는 두 가지 시간표가 공용되었는데 하나는 유대 시간표고 다른 하나는 로마 시간표입니다. 로마 시간표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간표와 같지만 유대 시간표는 그와 다릅니다. 학자들에 따라 요한 복음에 나온 시간을 로마 시간표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전통적으로는 유대 시간을 기준으로 해석해 왔기에 여기서는 그 해석을 따르기로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24시간 중 특별히 낮에 해당하는 시간인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12시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전 6시를 0시라 하고 오전 7시를 제 1시, 8시를 제 2시로 불렀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면 제 6시는 지금 시간으로는 낮 12시가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시간은 정오 경으로 추정됩니다.

7~8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앉아 쉬고 계시는데 마침 한 여인이 물을 길으러 나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마실 것을 주십시오.” 이 때 이 장소에는 예수님과 여인 두 사람만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요한은 “왜냐하면 그의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마을로 떠났기 때문입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 이 상황은 제자들이 없어서 예수님께 물을 떠다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무언가 석연찮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라면 자신이 직접 우물물을 떠서 드실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혹 제자들이 곁에 있었다 하더라도 우물이 깊어서 두레박 없이는 물을 뜰 수 없었을 것이고 그들도 똑같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제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여인과 예수님 단 둘만 있게 된 상황에서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던진 말이라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먼저 여자에게 말을 걸었으니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어색하고 당황스런 상황이 연출된 것이지요.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은 미리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단독으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까?(앞에서 설명한 역사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만일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았더라면 (월요일)

오늘의 본문 (요 4: 9~26)

9.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 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10.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11.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삽나이까
12.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나이까
13.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5.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으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16.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오라
17.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18. 네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19.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20.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21.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2.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23.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25. 여자가 가로되 메시야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26.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원문해석하기

- (9절) 그러자 그 여인이, 그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οὖν αὐτῷ ἡ γυνὴ ἡ Σαμαρίτις·)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πῶς σὺ Ἰουδαῖος)
사마리아 여인인 나로부터 마실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 (ὄν παρ' ἐμοῦ πεῖν αἰτεῖς γυναῖκός Σαμαρίτιδος οὔσης)
 왜냐 하면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는 상관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οὐ γὰρ συγγράνται Ἰουδαῖοι Σαμαρίταις)
- (10절) 예수님이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Ἰησοῦς καὶ εἶπεν αὐτῇ·)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당신에게 “나에게 마실것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이가 누구
 인지 알았더라면 (εἰ ἴδεις τὴν δωρεάν τοῦ θεοῦ καὶ τίς ἐστιν ὁ λέγων σοι· δός μοι πεῖν·)
 당신이 그에게 구하였을 것입니다 (σὺ ἂν ἴτησας αὐτὸν)
 그리고 그는 당신에게 생명의 물을 주었을 것입니다 (καὶ ἔδωκεν ἄν σοι ὕδωρ ζῶν.)
- (11절) 그 여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ῷ ἡ γυνή·)
 주님 [당신은] 물을 뜰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습니다 (κύριε, οὔτε ἀντλημα ἔχεις καὶ τὸ φρέαρ ἐστὶν βαθύ·)
 그런데 어디서 그 생명의 물(그 물, 그 생명)을 얻겠습니까? (πόθεν οὖν ἔχεις τὸ ὕδωρ τὸ ζῶν·)
- (12절)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 야곱보다 큰 분은 아니잖아요? (μὴ σὺ μείζων εἶ τοῦ πατρὸς ἡμῶν Ἰακώβ·)
 그분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ὅς ἔδωκεν ἡμῖν τὸ φρέαρ)
 그 [야곱] 역시 그의 아들들, 그의 가축들 모두 이것으로부터 마셨습니다
 (καὶ αὐτὸς ἐξ αὐτοῦ ἔπινε καὶ οἱ υἱοὶ αὐτοῦ καὶ τὰ θρέμματα αὐτοῦ·)
- (13절) 예수님이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Ἰησοῦς καὶ εἶπεν αὐτῇ·)
 이 물로부터 마시는 사람은 누구나 다시 목마르게 될 것입니다
 (πᾶς ὁ πίνων ἐκ τοῦ ὕδατος τούτου διψήσει πάλιν·)
- (14절)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나 (ὅς δ' ἂν πῖνῃ ἐκ τοῦ ὕδατος οὗ ἐγὼ δώσω αὐτῷ·)
 영원까지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οὐ μὴ διψήσει εἰς τὸν αἰῶνα·)
 내가 그에게 주는 그 물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입니다
 (ἀλλὰ τὸ ὕδωρ ὃ δώσω αὐτῷ γενήσεται ἐν αὐτῷ πηγὴ ὕδατος ἀλλομένου εἰς ζωὴν αἰώνιον·)
- (15절) 그녀가 그를 향해 말했습니다 (λέγει πρὸς αὐτὸν ἡ γυνή·)
 주님 저에게 이런 물을 주십시오 (κύριε, δός μοι τοῦτο τὸ ὕδωρ·)
 그러면 제가 목이 마르지도 이곳에 물을 길으러 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τίνα μὴ διψῶ μηδὲ διέρχωμαι ἐνθάδε ἀντλεῖν·)
- (16절) 그가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ῇ·)
 가서 당신의 남편을 불러 이곳으로 오시오 (ὑπάγε φώνησον τὸν ἄνδρα σου καὶ ἔλθε ἐνθάδε·)
- (17절) 그녀가 대답하여 그에게 말했습니다 (ἀπεκρίθη ἡ γυνή καὶ εἶπεν αὐτῷ·)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οὐκ ἔχω ἄνδρα·)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ῇ ὁ Ἰησοῦς·)
 당신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잘 말하셨습니다 (καλῶς εἶπας ὅτι ἄνδρα οὐκ ἔχω·)
- (18절) 왜냐하면 당신은 다섯 남편을 가졌었습니다 (πέντε γὰρ ἄνδρας ἔσχες)
 그런데 지금 남편도 당신의 남편이 아닙니다 (καὶ νῦν ὃν ἔχεις οὐκ ἔστιν σου ἀνὴρ·)
 당신은 그 진실을 말했습니다 (τοῦτο ἀληθὲς εἶρηκας·)
- (19절) 그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ῷ ἡ γυνή·)
 주님 내가 당신이 선지자임을 알겠습니다 (κύριε, θεωρῶ ὅτι προφήτης εἶ σύ·)
- (20절) 우리의 아버지들(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οἱ πατέρες ἡμῶν ἐν τῷ ὄρει τούτῳ προσεκύνησαν·)
 그리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할 장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καὶ ὑμεῖς λέγετε ὅτι ἐν Ἱεροσολύμοις ἐστὶν ὁ τόπος ὅπου προσκυνεῖν δεῖ·)
- (21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ῇ ὁ Ἰησοῦς·)

- 나를 믿으시오. 여자여!(πίστευέ μοι, γυναίκα.)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ὅτι ἔρχεται ὥρα ὅτε οὔτε ἐν τῷ ὄρει τούτῳ οὔτε ἐν Ἱεροσολύμοις προσκυνήσετε τῷ πατρὶ.)
(22절) 당신들은 당신들이 알지 못했던 그것을 예배합니다 (ὁμοίως προσκυνεῖτε ὃ οὐκ οἴδατε.)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합니다 (ἡμεῖς προσκυνοῦμεν ὃ οἴδαμεν.)
왜냐하면 그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있기 때문입니다 (ὅτι ἡ σωτηρία ἐκ τῶν Ἰουδαίων ἐστίν.)
(23절) 그러나 시간이 오고 있고 [바로] 지금입니다 (ἀλλὰ ἔρχεται ὥρα καὶ νῦν ἐστίν.)
진리의 예배자가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리시는 때입니다
(ὅτε οἱ ἀληθινοὶ προσκυνηταὶ προσκυνήσουσιν τῷ πατρὶ ἐν πνεύματι καὶ ἀληθείᾳ.)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를 예배하는 그런 자들을 찾습니다
(καὶ γὰρ ὁ πατὴρ τοιοῦτους ζητεῖ τοὺς προσκυνῶντας αὐτόν.)
(24절)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πνεῦμα ὁ θεός.)
그를 예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καὶ τοὺς προσκυνῶντας αὐτόν ἐν πνεύματι καὶ ἀληθείᾳ δεῖ προσκυνεῖν.)
(25절) 여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ῷ ἡ γυνή.)
나는 그리스도라 불리우는 메시아가 오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οἶδα ὅτι Μεσσίας ἔρχεται ὁ λεγόμενος χριστός.)
그분이 오시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 줄 것입니다
(ὅταν ἔλθῃ ἐκεῖνος, ἀναγγελεῖ ἡμῖν ὅπαντα.)
(26절)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ῇ ὁ Ἰησοῦς.)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입니다 (ἐγώ εἰμι, ὁ λαλῶν σοι.)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먼저 9절을 읽으십시오. 마실 것을 달라고 한 예수님의 부탁에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마실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말 속에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간의 뿌리깊은 반목, 갈등, 왜곡된 역사관이 묻어 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한도 9절 마지막 부분에 “왜냐하면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는 상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이런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사실 목마른 사람은 예수님이요 그분이 먼저 이 여인에게 마실 것을 달라고 부탁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치 그런 사실을 잊은 듯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당신에게 “나에게 마실 것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었다면 당신이 그에게 구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에게 생명

의 물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한 것은 실제로 자신이 목이 말라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뜻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목마름이 어떤 건지 그 의미를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말로 알았다면 그가 먼저 자기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생명의 물을 그에게 주셨을 거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물(ὕδωρ ζῶν)’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우리 성경에는 생수로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생수가 다른 뜻으로 많이 쓰여서 부득이 생명의 물로 번역했습니다. 직역하면 ‘살아 있는 물’입니다.)

11~12 절을 읽으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예수님께 두 가지 현실적인 질문을 합니다. 첫째, 당신에게는 물을 뜰 그릇(두레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깊은 우물에서 생명의 물을 길어다 줄 수 있다고 하느냐? 둘째, 지금 이 우물은 자신들의 조상 야곱이 준 것이고 야곱 또한 이 우물에서 물을 얻었는데 당신 말대로 다른 데서 생명의 물을 얻어다 줄 수 있다면 당신은 야곱보다 큰 사람이나?

이 두 가지 질문을 선불리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사마리아 여인이 너무 현실적이어서 예수님의 능력을 모르거나 무시하고 있지만 실상은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식으로 해석한다거나 또는 단순하게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믿음없는 자로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질문 속에는 어떤 심오한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질문은 “도대체 어디서 그 생명의 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즉, 어디로부터 또는 누구로부터 얻을 수 있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레박으로 퍼 올려야 하는 이 우물은 아닐 것이고 그렇다면 어디서 그런 물을 얻을 수 있느냐? 라는 뜻이죠. 두 번째 질문은 첫째 질문에 연결되는 것으로 “우리 조상 야곱도 얻지 못한 그 생명의 물을 어떻게 당신이 줄 수 있느냐? 그렇다면 당신이 야곱보다 큰 분이라는 말이나?” 라는 뜻이지요. 이 말은 만약 예수님이 그럴 능력이 있다면 그분은 야곱보다 크신 어떤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분은 누구일까요?

사마리아 여인은 매우 조심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지만 나중에 25, 26 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 주십니다. 결국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나눈 대화의 결론이지요. 사마리아 여인이 던진 두 질문에 예수님이 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실체에 관한 진리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두 질문을 통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야곱으로부터 찾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열두지파의 뿌리가 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렸고 여기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솔로몬 왕 때까지 야곱의 자손이라는 정체성을 기반으로 운명 공동체를 형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사후 두 나라로 나뉘어진 이후 그들은 더 이상 운명 공동체가 아니라 오히려 서로 대립하며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아왔고 결국에는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을 한 뿌리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은 남유다에 다윗 왕조가 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기에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바로 그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이지요. 구약 성경은 남유다의 회복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회복도 함께 예언하고 있음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회복하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지요.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유다와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5-28 절입니다.

¹⁵ 여호와와 그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¹⁶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¹⁷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¹⁸ 네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¹⁹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그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²⁰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목전에서 손에 잡고 ²¹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그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²²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에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²³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²⁴ 내 조상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²⁵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가 내 조상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²⁶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²⁷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²⁸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케 하는 여호와인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겔 37:15-28).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신 직후 에스겔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에스겔서는 바벨론 포로기 중에 기록된 말씀이므로 북이스라엘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인간들이 생각하는 회복이 아닌 온전하고 궁극적인 회복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겔서에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 이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매우 중요한 언약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에스겔 36장 22~28 절을 읽으십시오.

“²²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그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었던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²³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²⁴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²⁵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²⁶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²⁷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²⁸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겔 36:22-28).

이 예언은 오순절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심으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 동안 하신 실제적인 사역으로 그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을 보여주셨습니다. 본문에서 수가성의 한 여인이 던진 질문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바로 그 언약에 관한 질문이었으며 예수님은 그 해답을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영원까지 목마르지 않는 물 (화요일)

오늘의 본문 (요 4:9~26)

9.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 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10.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11.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삽나이까
12.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나이까
13.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5.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으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16.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오라
17.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18. 내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19.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20.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21.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2.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23.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25. 여자가 가로되 메시야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2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원문해석하기

- (9절) 그러자 그 여인이, 그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οὖν αὐτῷ ἡ γυνὴ ἡ Σαμαρίτις·)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πῶς σὺ Ἰουδαῖος)
사마리아 여인인 나로부터 마실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 (ὄν παρ' ἐμοῦ πῖν αἰτεῖς γυναῖκός Σαμαρίτιδος οὔσης)
 왜냐하면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는 상관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οὐ γὰρ συγγράνται Ἰουδαῖοι Σαμαρίταις)
- (10절) 예수님이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Ἰησοῦς καὶ εἶπεν αὐτῇ·)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당신에게 “나에게 마실것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이가 누구
 인지 알았더라면 (εἰ ἴδεις τὴν δωρεάν τοῦ θεοῦ καὶ τίς ἐστιν ὁ λέγων σοι· δός μοι πῖν,)
 당신이 그에게 구하였을 것입니다 (σὺ ἂν ἤτησας αὐτὸν)
 그리고 그는 당신에게 생명의 물을 주었을 것입니다 (καὶ ἔδωκεν ἄν σοι ὕδωρ ζῶν.)
- (11절) 그 여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ῷ ἡ γυνή·)
 주님 [당신은] 물을 뜰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습니다 (κύριε, οὔτε ἀντλημα ἔχεις καὶ τὸ φρέαρ ἐστὶν βαθύ·)
 그런데 어디서 그 생명의 물(그 물, 그 생명)을 얻겠습니까? (πόθεν οὖν ἔχεις τὸ ὕδωρ τὸ ζῶν;)
- (12절)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 야곱보다 큰 분은 아니잖아요? (μὴ σὺ μείζων εἶ τοῦ πατρὸς ἡμῶν Ἰακώβ·)
 그분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ὅς ἔδωκεν ἡμῖν τὸ φρέαρ)
 그[야곱] 역시 그의 아들들, 그의 가축들 모두 이것으로부터 마셨습니다
 (καὶ αὐτὸς ἐξ αὐτοῦ ἔπιεν καὶ οἱ υἱοὶ αὐτοῦ καὶ τὰ θρέμματα αὐτοῦ;)
- (13절) 예수님이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Ἰησοῦς καὶ εἶπεν αὐτῇ·)
 이 물로부터 마시는 사람은 누구나 다시 목마르게 될 것입니다
 (πᾶς ὁ πίνων ἐκ τοῦ ὕδατος τούτου διψήσει πάλιν·)
- (14절)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나 (ὅς δ' ἂν πῖν ἐκ τοῦ ὕδατος οὗ ἐγὼ δώσω αὐτῷ·)
 영원까지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οὐ μὴ διψήσει εἰς τὸν αἰῶνα·)
 내가 그에게 주는 그 물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입니다
 (ἀλλὰ τὸ ὕδωρ ὃ δώσω αὐτῷ γενήσεται ἐν αὐτῷ πηγὴ ὕδατος ἀλλομένου εἰς ζωὴν αἰώνιον.)
- (15절) 그녀가 그를 향해 말했습니다 (λέγει πρὸς αὐτὸν ἡ γυνή·)
 주님 저에게 이런 물을 주십시오 (κύριε, δός μοι τοῦτο τὸ ὕδωρ·)
 그러면 제가 목이 마르지도 이곳에 물을 길으러 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τίνα μὴ διψῶ μηδὲ διέρχωμαι ἐνθάδε ἀντλεῖν·)
- (16절) 그가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ῇ·)
 가서 당신의 남편을 불러 이 곳으로 오시오 (ὑπάγε φώνησον τὸν ἄνδρα σου καὶ ἔλθε ἐνθάδε·)
- (17절) 그녀가 대답하여 그에게 말했습니다 (ἀπεκρίθη ἡ γυνή καὶ εἶπεν αὐτῷ·)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οὐκ ἔχω ἄνδρα·)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ῇ ὁ Ἰησοῦς·)
 당신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잘 말하셨습니다 (καλῶς εἶπας ὅτι ἄνδρα οὐκ ἔχω·)
- (18절) 왜냐하면 당신은 다섯 남편을 가졌었습니다 (πέντε γὰρ ἄνδρας ἔσχες)
 그런데 지금 남편도 당신의 남편이 아닙니다 (καὶ νῦν ὃν ἔχεις οὐκ ἔστιν σου ἀνὴρ·)
 당신은 그 진실을 말했습니다 (τοῦτο ἀληθὲς εἶρηκας·)
- (19절) 그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ῷ ἡ γυνή·)
 주님 내가 당신이 선지자임을 알겠습니다 (κύριε, θεωρῶ ὅτι προφήτης εἶ σύ·)
- (20절) 우리의 아버지들(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οἱ πατέρες ἡμῶν ἐν τῷ ὄρει τούτῳ προσεκύνησαν·)
 그리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할 장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καὶ ὑμεῖς λέγετε ὅτι ἐν Ἱεροσολύμοις ἐστὶν ὁ τόπος ὅπου προσκυνεῖν δεῖ·)
- (21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ῇ ὁ Ἰησοῦς·)

- 나를 믿으시오. 여자여! (πίστευέ μοι, γυναίκα.)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ὅτι ἔρχεται ὥρα ὅτε οὔτε ἐν τῷ ὄρει τούτῳ οὔτε ἐν Ἱεροσολύμοις προσκυνήσετε τῷ πατρὶ.)
(22절) 당신들은 당신들이 알지 못했던 그것을 예배합니다 (ὁμοίως προσκυνεῖτε ὃ οὐκ οἴδατε.)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합니다 (ἡμεῖς προσκυνοῦμεν ὃ οἴδαμεν.)
왜냐하면 그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있기 때문입니다 (ὅτι ἡ σωτηρία ἐκ τῶν Ἰουδαίων ἐστίν.)
(23절) 그러나 시간이 오고 있고 [바로] 지금입니다 (ἀλλὰ ἔρχεται ὥρα καὶ νῦν ἐστίν.)
진리의 예배자가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리시는 때입니다
(ὅτε οἱ ἀληθινοὶ προσκυνηταὶ προσκυνήσουσιν τῷ πατρὶ ἐν πνεύματι καὶ ἀληθείᾳ.)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를 예배하는 그런 자들을 찾습니다
(καὶ γὰρ ὁ πατήρ τοιοῦτους ζητεῖ τοὺς προσκυνῶντας αὐτόν.)
(24절)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πνεῦμα ὁ θεός.)
그를 예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καὶ τοὺς προσκυνῶντας αὐτόν ἐν πνεύματι καὶ ἀληθείᾳ δεῖ προσκυνεῖν.)
(25절) 여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ῷ ἡ γυνή.)
나는 그리스도라 불리우는 메시아가 오시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οἶδα ὅτι Μεσσίας ἔρχεται ὁ λεγόμενος χριστός.)
그분이 오시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 줄 것입니다
(ὅταν ἔλθῃ ἐκεῖνος, ἀναγγελεῖ ἡμῖν ὅπαντα.)
(26절)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ῇ ὁ Ἰησοῦς.)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입니다 (ἐγώ εἰμι, ὁ λαλῶν σοι.)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13~14 절은 여인이 제시한 두가지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여인은 “어디서 그 생명의 물을 얻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야곱보다 큼니까?”라는 두 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13~14 절의 말씀은 첫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정리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들이 만든 우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원천이고 생명의 물의 근원이라는 말이지요. 당신은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이해하고 있는 생수의 근원에 대해 간단히 써 보십시오.

이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구원 사역(이사야 53 장) 이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선포한 말씀임을 유념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5 장 1~5 절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와 젖을 사라 ²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³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⁴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⁵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사 55:1-5).

이사야서 55 장 말씀을 토대로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물’이 과연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1 절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시고는 3 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네 영혼이 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의 원천인 것입니다. 실제로 아모스 8 장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8 장 11~13 절 말씀입니다.

“¹¹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¹²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¹³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피곤하리라”(암 8:11-13).

하나님의 말씀은 종종 물로 비유됩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체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음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어느 누구도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다면 이 말씀은 그저 인간적인 교훈에 그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땅에 오셨는데도 사람들은 그를 몰라 본 것이지요. 요한복음 4 장 14 절에서 예수님은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까지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주는 그 물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셨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인간의 교훈이 아닌 당신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었음을 알게 된 그날 그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그 기억을 간단하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턱대고 자신의 삶에 적용한다고 그것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았고 삶속에서 실천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말씀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한 근거는 다른 무엇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은 받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생명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말씀이 인간들에게 왔을 때 일어나야 할 일에 대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¹⁵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¹⁶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¹⁷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딤후 3:15-17).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함”과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는 이 두가지가 성경을 주신 목적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말씀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 다음은 생명을 얻은 사람이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이 두 가지를 다 갖추어야 하며 순서도 절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전자가 없이 후자만 있으면 바리새인같이 율법주의자가 되고 후자가 없이 전자만 있다면 영지주의자들이나 도덕폐기론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둘 다 모두 온전하지도 않을 뿐더러 위험하기까지 하지요. 따라서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물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 생명을 얻게 되고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5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에게 이런 물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더 이상 목이 마르지도 이 곳에 물을 길으러 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은 자신이 목마른 자임을 고백합니다. 앞서 보았듯이 이 대화의 시작은 예수님이 먼저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하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물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인은 다시는 물을 길으러 오지 않아도 되게 그 물을 달라고 합니다. 물론 이 여인은 여전히 그 물을 일상적으로 마시는 물(H₂O)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의 이 말은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해결할 수도 없을 것처럼 보이는 사마리아인의 본질적인 문제(이스라엘로서의 정체성의 회복)를 해결해 달라는 간절한 애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인간 본연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 경험이 있었습니까? 그 문제는 무엇이었으며 어떠한 응답을 받았나요?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나는 남편이 없나다 (수요일)

오늘의 본문 (요 4:9~26)

9.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 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10.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11.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삽나이까
12.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나이까
13.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5.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으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16.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오라
17.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18. 내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19.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20.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21.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2.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23.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25. 여자가 가로되 메시야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26.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원문해석하기

- (9절) 그러자 그 여인이, 그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οὖν αὐτῷ ἡ γυνὴ ἡ Σαμαρίτις·)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πῶς σὺ Ἰουδαῖος)
사마리아 여인인 나로부터 마실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 (ὄν παρ' ἐμοῦ πῖν αἰτεῖς γυναῖκός Σαμαρίτιδος οὔσης)
 왜냐하면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는 상관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οὐ γὰρ συγγράνται Ἰουδαῖοι Σαμαρίταις)
- (10절) 예수님이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Ἰησοῦς καὶ εἶπεν αὐτῇ·)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당신에게 “나에게 마실것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이가 누구
 인지 알았더라면 (εἰ ἴδεις τὴν δωρεάν τοῦ θεοῦ καὶ τίς ἐστιν ὁ λέγων σοι· δός μοι πῖν,)
 당신이 그에게 구하였을 것입니다 (σὺ ἂν ἴτησας αὐτὸν)
 그리고 그는 당신에게 생명의 물을 주었을 것입니다 (καὶ ἔδωκεν ἄν σοι ὕδωρ ζῶν.)
- (11절) 그 여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ῷ ἡ γυνή·)
 주님 [당신은] 물을 뜰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습니다 (κύριε, οὔτε ἀντλημα ἔχεις καὶ τὸ φρέαρ ἐστὶν βαθύ·)
 그런데 어디서 그 생명의 물(그 물, 그 생명)을 얻겠습니까? (πόθεν οὖν ἔχεις τὸ ὕδωρ τὸ ζῶν;)
- (12절)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 야곱보다 큰 분은 아니잖아요? (μὴ σὺ μείζων εἶ τοῦ πατρὸς ἡμῶν Ἰακώβ·)
 그분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ὅς ἔδωκεν ἡμῖν τὸ φρέαρ)
 그 [야곱] 역시 그의 아들들, 그의 가축들 모두 이것으로부터 마셨습니다
 (καὶ αὐτὸς ἐξ αὐτοῦ ἔπινε καὶ οἱ υἱοὶ αὐτοῦ καὶ τὰ θρέμματα αὐτοῦ·)
- (13절) 예수님이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Ἰησοῦς καὶ εἶπεν αὐτῇ·)
 이 물로부터 마시는 사람은 누구나 다시 목마르게 될 것입니다
 (πᾶς ὁ πίνων ἐκ τοῦ ὕδατος τούτου διψήσει πάλιν·)
- (14절)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나 (ὅς δ' ἂν πῖν ἐκ τοῦ ὕδατος οὗ ἐγὼ δώσω αὐτῷ·)
 영원까지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οὐ μὴ διψήσει εἰς τὸν αἰῶνα·)
 내가 그에게 주는 그 물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입니다
 (ἀλλὰ τὸ ὕδωρ ὃ δώσω αὐτῷ γενήσεται ἐν αὐτῷ πηγὴ ὕδατος ἀλλομένου εἰς ζωὴν αἰώνιον·)
- (15절) 그녀가 그를 향해 말했습니다 (λέγει πρὸς αὐτὸν ἡ γυνή·)
 주님 저에게 이런 물을 주십시오 (κύριε, δός μοι τοῦτο τὸ ὕδωρ·)
 그러면 제가 목이 마르지도 이곳에 물을 길으러 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τίνα μὴ διψῶ μηδὲ διέρχωμαι ἐνθάδε ἀντλεῖν·)
- (16절) 그가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ῇ·)
 가서 당신의 남편을 불러 이곳으로 오시오 (ὑπάγε φώνησον τὸν ἄνδρα σου καὶ ἔλθε ἐνθάδε·)
- (17절) 그녀가 대답하여 그에게 말했습니다 (ἀπεκρίθη ἡ γυνή καὶ εἶπεν αὐτῷ·)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οὐκ ἔχω ἄνδρα·)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ῇ ὁ Ἰησοῦς·)
 당신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잘 말하셨습니다 (καλῶς εἶπας ὅτι ἄνδρα οὐκ ἔχω·)
- (18절) 왜냐하면 당신은 다섯 남편을 가졌었습니다 (πέντε γὰρ ἄνδρας ἔσχες)
 그런데 지금 남편도 당신의 남편이 아닙니다 (καὶ νῦν ὃν ἔχεις οὐκ ἔστιν σου ἀνὴρ·)
 당신은 그 진실을 말했습니다 (τοῦτο ἀληθὲς εἶρηκας·)
- (19절) 그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ῷ ἡ γυνή·)
 주님 내가 당신이 선지자임을 알겠습니다 (κύριε, θεωρῶ ὅτι προφήτης εἶ σύ·)
- (20절) 우리의 아버지들(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οἱ πατέρες ἡμῶν ἐν τῷ ὄρει τούτῳ προσεκύνησαν·)
 그리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할 장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καὶ ὑμεῖς λέγετε ὅτι ἐν Ἱεροσολύμοις ἐστὶν ὁ τόπος ὅπου προσκυνεῖν δεῖ·)
- (21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ῇ ὁ Ἰησοῦς·)

- 나를 믿으시오 여자여 (πίστευέ μοι, γύναι.)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ὅτι ἔρχεται ὥρα ὅτε οὔτε ἐν τῷ ὄρει τούτῳ οὔτε ἐν Ἱεροσολύμοις προσκυνήσετε τῷ πατρὶ.)
- (22절) 당신들은 당신들이 알지 못했던 그것을 예배합니다 (ὁμοίως προσκυνεῖτε ὃ οὐκ οἴδατε.)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합니다 (ἡμεῖς προσκυνοῦμεν ὃ οἴδαμεν.)
왜냐하면 그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있기 때문입니다 (ὅτι ἡ σωτηρία ἐκ τῶν Ἰουδαίων ἐστίν.)
- (23절) 그러나 시간이 오고 있고 [바로] 지금입니다 (ἀλλὰ ἔρχεται ὥρα καὶ νῦν ἐστίν.)
진리의 예배자가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리시는 때입니다
(ὅτε οἱ ἀληθινοὶ προσκυνηταὶ προσκυνήσουσιν τῷ πατρὶ ἐν πνεύματι καὶ ἀληθείᾳ.)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를 예배하는 그런 자들을 찾습니다
(καὶ γὰρ ὁ πατὴρ τοιοῦτους ζητεῖ τοὺς προσκυνῶντας αὐτόν.)
- (24절)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πνεῦμα ὁ θεός.)
그를 예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καὶ τοὺς προσκυνῶντας αὐτόν ἐν πνεύματι καὶ ἀληθείᾳ δεῖ προσκυνεῖν.)
- (25절) 여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ῷ ἡ γυνή.)
나는 그리스도라 불리우는 메시아가 오시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οἶδα ὅτι Μεσσίας ἔρχεται ὁ λεγόμενος χριστός.)
그분이 오시면 언제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 줄 것입니다
(ὅταν ἔλθῃ ἐκεῖνος, ἀναγγελεῖ ἡμῖν ὅπαντα.)
- (26절)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ῇ ὁ Ἰησοῦς.)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입니다 (ἐγώ εἰμι, ὁ λαλῶν σοι.)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16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달라고 말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뜬금없이 “가서 당신의 남편을 불러 이곳으로 오시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언뜻 보면 사리에도 맞지 않고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남편’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귀가 어두워 동문서답을 하셨거나 갑자기 그 여인의 남편이 궁금하셨을 리 만무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반드시 깊은 뜻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타당하고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둘 사이에 어떤 연결 고리를 찾아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현재 이 여인이 처한 상황을 들어 어떤 중요한 사실을 설명하시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에게는 남편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 여인에게에는 이미 다섯 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남편이 있긴 하지만 진짜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기구한 운명을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예수님은 이런 기구한 여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 땅으로 향하셨을까요?

여자에게 남편이 그만큼 많았다는 것은 그 여인이 정결하지 못하다는 의미도 되고, 험난하고 고단한 삶의 여정을 겪어왔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당시 유대 풍습에는 여자들은 이혼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지금과는 달리 결혼도 이혼도 여자들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이 여인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게 되었고 그 결과 당시 사회적 통념상 추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단지 한 여인의 기구한 삶에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상은 예수님은 이 여인을 통해 사마리아인 전체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따라서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남편은 단지 부부의 한 쪽 즉, 아내의 배우자라는 개념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유념하면서 그 당시 사마리아의 상황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로 대표되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여인의 기구한 삶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북이스라엘이 BC 722년 앗수르에 멸망당한 후 그들의 터전은 앗수르 사람들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²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꾼의 손에 붙이시고 심지어 그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²¹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시매 저희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으로 왕을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²²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의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떠나지 아니하므로 ²³ 여호와께서 그 중 모든 선지자로 하신 말씀대로 심지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제하시니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앗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미쳤더라 ²⁴ 앗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에 거하니라” (왕하 17:20-24).

북 이스라엘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과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열 지파가 세운 나라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다가 급기야 멸망하게 되고 끝내는 자신들의 터전을 떠나사로 잡혀간 이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떠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엔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 사람들을 옮겨와서 살게 했을 뿐 아니라 이주민과 강제 결혼까지 하게 했습니다. 이로써 북이스라엘은 혈통의 순수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 심각한 것은 종교 혼합 정책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열왕기하 17 장 내용을 읽어 보기로 하지요.

“²⁹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의 지은 여러 산당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의 거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³⁰ 바벨론 사람들은 속곳브נות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갈을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³¹ 아와 사람들은 님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³² 저희가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³³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³⁴ 저희가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는도다 ³⁵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저희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숭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³⁶ 오직 큰 능력과 편 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만 너희가 경외하여 그를 숭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³⁷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너희가 지켜 영원히 행하

고 다른 신들을 경외치 말며 ³⁸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치 말고 ³⁹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40 그러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⁴¹그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더니 그 자자 손손이 그 열조의 행한 것을 좇아 오늘까지 그대로 하니라”(왕하 17:29-41).

이같은 종교 혼합 정책은 사마리아인의 혈통 뿐 아니라 영적 정체성마저 혼탁스럽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사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직후부터 이미 하나님을 떠나 송아지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송아지는 원래 이집트의 토속 종교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 후에도 북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고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 결과 이런 심각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그들이 처한 이런 상황에서 사마리아인들이 가지고 있던 자신들의 정체성은 어떠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길이 과연 무엇일지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7~18 절을 읽으십시오. 여인은 자신에겐 남편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녀가 진실을 말했다고 하십니다. 그가 남편이 다섯이었고 지금 남편도 그녀의 남편이 아니라고 잘라 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현재 남편과 살고 있으나 진정한 남편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여인의 실제 삶은 너무나 기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얘기했듯이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개인사를 통해 사마리아인들이 겪고 있는 정체성 문제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로 분리된 직후부터 사마리아로 대표되는 북이스라엘은 정치적 격랑에 휩싸이게 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난 것은 물론입니다. 여로보암으로 시작되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 앗수르 → 바벨로니아 → 페르시아 → 헬라제국 → 셀레우시드 →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에 걸친 외세의 지배를 받으면서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또 다시 여섯 번째 외세인 로마 제국의 영향 아래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통해 북이스라엘의 이러한 역사적 현실을 지적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은 치욕의 역사로 인해 사마리아는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만신창이가 되고 맙니다. 이 상처투성이고 도저히 회복 불가능할 것 같은 사마리아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이지요. 그리고는 남편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사마리아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실 수 있을까요? 당신의 신앙을 되돌아 보십시오. 당신은 온전히 하나님 한분만 섬겼습니까? 당신의 생각이나 세계관에 따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분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섬기지는 않았나요? 당신의 신앙 여정을 간단하게 적어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과거의 상처가 어떻게 치유되었는지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영과 진리로 예비하라 (목요일)

오늘의 본문 (요 4:9~26)

9.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 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10.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11.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삽나이까
12.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나이까
13.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5.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으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16.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오라
17.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18. 네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19.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20.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21.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2.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 아니라
23.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25. 여자가 가로되 메시야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26.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원문해석하기

- (9절) 그러자 그 여인이, 그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οὖν αὐτῷ ἡ γυνὴ ἡ Σαμαρίτις·)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πῶς σὺ Ἰουδαῖος)
사마리아 여인인 나로부터 마실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 (ὄν παρ' ἐμοῦ πῖν αἰτεῖς γυναῖκός Σαμαρίτιδος οὔσης)
 왜냐하면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는 상관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οὐ γὰρ συγγράνται Ἰουδαῖοι Σαμαρίταις)
- (10절) 예수님이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Ἰησοῦς καὶ εἶπεν αὐτῇ·)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당신에게 “나에게 마실것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이가 누구
 인지 알았더라면 (εἰ ἴδεις τὴν δωρεάν τοῦ θεοῦ καὶ τίς ἐστιν ὁ λέγων σοι· δός μοι πῖν·)
 당신이 그에게 구하였을 것입니다 (σὺ ἂν ἴτησας αὐτὸν)
 그리고 그는 당신에게 생명의 물을 주었을 것입니다 (καὶ ἔδωκεν ἄν σοι ὕδωρ ζῶν.)
- (11절) 그 여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ῷ ἡ γυνή·)
 주님 [당신은] 물을 뜰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습니다 (κύριε, οὔτε ἀντλημα ἔχεις καὶ τὸ φρέαρ ἐστὶν βαθύ·)
 그런데 어디서 그 생명의 물(그 물, 그 생명)을 얻겠습니까? (πόθεν οὖν ἔχεις τὸ ὕδωρ τὸ ζῶν·)
- (12절)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 야곱보다 큰 분은 아니잖아요? (μὴ σὺ μείζων εἶ τοῦ πατρὸς ἡμῶν Ἰακώβ·)
 그분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ὅς ἔδωκεν ἡμῖν τὸ φρέαρ)
 그 [야곱] 역시 그의 아들들, 그의 가축들 모두 이것으로부터 마셨습니다
 (καὶ αὐτὸς ἐξ αὐτοῦ ἔπιεν καὶ οἱ υἱοὶ αὐτοῦ καὶ τὰ θρέμματα αὐτοῦ·)
- (13절) 예수님이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Ἰησοῦς καὶ εἶπεν αὐτῇ·)
 이 물로부터 마시는 사람은 누구나 다시 목마르게 될 것입니다
 (πᾶς ὁ πίνων ἐκ τοῦ ὕδατος τούτου διψήσει πάλιν·)
- (14절)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나 (ὅς δ' ἂν πῖν ἐκ τοῦ ὕδατος οὗ ἐγὼ δώσω αὐτῷ·)
 영원까지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οὐ μὴ διψήσει εἰς τὸν αἰῶνα·)
 내가 그에게 주는 그 물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입니다
 (ἀλλὰ τὸ ὕδωρ ὃ δώσω αὐτῷ γενήσεται ἐν αὐτῷ πηγὴ ὕδατος ἀλλομένου εἰς ζωὴν αἰώνιον·)
- (15절) 그녀가 그를 향해 말했습니다 (λέγει πρὸς αὐτὸν ἡ γυνή·)
 주님 저에게 이런 물을 주십시오 (κύριε, δός μοι τοῦτο τὸ ὕδωρ·)
 그러면 제가 목이 마르지도 이곳에 물을 길으러 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τίνα μὴ διψῶ μηδὲ διέρχωμαι ἐνθάδε ἀντλεῖν·)
- (16절) 그가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ῇ·)
 가서 당신의 남편을 불러 이곳으로 오시오 (ὑπάγε φώνησον τὸν ἄνδρα σου καὶ ἔλθε ἐνθάδε·)
- (17절) 그녀가 대답하여 그에게 말했습니다 (ἀπεκρίθη ἡ γυνή καὶ εἶπεν αὐτῷ·)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οὐκ ἔχω ἄνδρα·)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ῇ ὁ Ἰησοῦς·)
 당신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잘 말하셨습니다 (καλῶς εἶπας ὅτι ἄνδρα οὐκ ἔχω·)
- (18절) 왜냐하면 당신은 다섯 남편을 가졌었습니다 (πέντε γὰρ ἄνδρας ἔσχες)
 그런데 지금 남편도 당신의 남편이 아닙니다 (καὶ νῦν ὃν ἔχεις οὐκ ἔστιν σου ἀνὴρ·)
 당신은 그 진실을 말했습니다 (τοῦτο ἀληθὲς εἶρηκας·)
- (19절) 그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ῷ ἡ γυνή·)
 주님 내가 당신이 선지자임을 알겠습니다 (κύριε, θεωρῶ ὅτι προφήτης εἶ σύ·)
- (20절) 우리의 아버지들(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οἱ πατέρες ἡμῶν ἐν τῷ ὄρει τούτῳ προσεκύνησαν·)
 그리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할 장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καὶ ὑμεῖς λέγετε ὅτι ἐν Ἱεροσολύμοις ἐστὶν ὁ τόπος ὅπου προσκυνεῖν δεῖ·)
- (21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ῇ ὁ Ἰησοῦς·)

- 나를 믿으시오 여자여 (πίστευέ μοι, γυναίκα,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ὅτι ἔρχεται ὥρα ὅτε οὔτε ἐν τῷ ὄρει τούτῳ οὔτε ἐν Ἱεροσολύμοις προσκυνήσετε τῷ πατρὶ.)
(22절) 당신들은 당신들이 알지 못했던 그것을 예배합니다 (ὁμοίως προσκυνεῖτε ὃ οὐκ οἴδατε·)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합니다 (ἡμεῖς προσκυνοῦμεν ὃ οἴδαμεν.)
왜냐하면 그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있기 때문입니다 (ὅτι ἡ σωτηρία ἐκ τῶν Ἰουδαίων ἐστίν.)
(23절) 그러나 시간이 오고 있고 [바로] 지금입니다 (ἀλλὰ ἔρχεται ὥρα καὶ νῦν ἐστίν.)
진리의 예배자가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리시는 때입니다
(ὅτε οἱ ἀληθινοὶ προσκυνηταὶ προσκυνήσουσιν τῷ πατρὶ ἐν πνεύματι καὶ ἀληθείᾳ·)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를 예배하는 그런 자들을 찾습니다
(καὶ γὰρ ὁ πατὴρ τοιοῦτους ζητεῖ τοὺς προσκυνῶντας αὐτόν.)
(24절)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πνεῦμα ὁ θεός.)
그를 예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καὶ τοὺς προσκυνῶντας αὐτόν ἐν πνεύματι καὶ ἀληθείᾳ δεῖ προσκυνεῖν.)
(25절) 여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ῷ ἡ γυνή·)
나는 그리스도라 불리우는 메시아가 오시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οἶδα ὅτι Μεσσίας ἔρχεται ὁ λεγόμενος χριστός·)
그분이 오시면 언제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 줄 것입니다
(ὅταν ἔλθῃ ἐκεῖνος, ἀναγγελεῖ ἡμῖν ὅπαντα.)
(26절)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ῇ ὁ Ἰησοῦς·)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입니다 (ἐγώ εἰμι, ὁ λαλῶν σοι.)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19-20 절을 읽으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내가 당신이 선지자임을 알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들(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할 장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아직 선지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이 대화의 끝 무렵 (25-26 절)에 가서야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닌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예배보다는 예배 장소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이라 불리던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의 조상들(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이와 관련된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있는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지요. 열왕기상 12 장 25~33 절을 보겠습니다.

²⁵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부느엘을 건축하고
²⁶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²⁷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²⁸로다 하고 ²⁸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들이라 하고 ²⁹ 하나는 벤엘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³⁰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³¹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³² 팔월 곧 그달 십 오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벤엘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벤엘에서 세웠더라 ³³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팔월 십 오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벤엘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왕상12:25-33).

이 일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분리된 직후 벌어진 일입니다. 이 일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우상 숭배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요한복음 4 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말한 내용은 바로 여로보암의 말에 따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이 정한 장소에서 자신들이 임의로 정한 시간에 자신들이 만든 신에게 예배해 온 역사를 한마디로 함축한 말인 것입니다.

요즘도 이처럼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간들이 정한 시간(주일 특정시간)에 인간들이 정한 예배 처소에서 인간들이 정한 순서에 따라 인간들의 교훈을 듣고는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진정한 예배는 인간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전통이라는 것은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전통이 어느 순간 법이 되고 그것이 진리로 둔갑되는 일은 너무 흔한 일이지요. 당신이 습관적으로 해 온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께 경배를 올려드린 것인지 아니면 습관처럼 아무 생각없이 해 온 종교적 행위인지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21~24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자신을 믿으라고 말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기존에 사람들이 알고 있던 것이 아닌 새로운 성전, 예수님의 몸,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교회는 지역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 교회를 의미합니다. 지역 교회는 시대나 환경에 따라 형식이나 모양이 달랐고 지금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지금처럼 교회 예배당에 나가서 짜여진 틀에 따라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4세기 초 이후부터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는 성전이 더 이상 무의미함을 말씀하시는 동시에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약속이 비로소 성취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남유다뿐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반드시 회복될 것임을 약속하셨고 이제 그 약속이 성취되는 시간이 온 것이지요. 예레미야 31 장 1~12 절을 읽으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²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³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

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⁴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
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로 너를 장식하고 즐거운 무리처럼 춤추며 나올 것이
며⁵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원을 심되 심는 자가 심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⁶ 에브라임산 위에
서 파숫군이 외치는 날이 이를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
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⁷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의 머리 된 자를 위하여 외쳐 전파하며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⁸ 보라 내가 그들을 북편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
는 소경과 절뚝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
되⁹ 울며 올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입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파숫가
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¹⁰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와 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흠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무리에게 행함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¹¹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
에서 구속 하셨으니¹²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와 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
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댄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
로다 할지어다”(렘 31:1-12).

이는 열두 지파의 완전한 회복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이 약속의 성취를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마리아인들의 과거의 치욕을 묻지 않습니다. 그들의 수
치를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회복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는 것이지요.

23-24절을 다시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이제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가십니다. 진리의 예배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그 때에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때가 온
것입니다. 예배자도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이 아닙니다. 예배의 장소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시간도 하나님이 정하시며 게다가 예배자도 하나님
이 정하십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찾아 오셔서 예배의 의미
를 알려 주시고 그 말씀대로 예배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 참된 하늘의 것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살리는 영이시며 참된 하늘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
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
배지요. 당신은 지금 예배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헌금? 재능? 몸?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예배의 본질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25-26절을 읽으십시오. 이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간의 대화가 마무리 되는 단계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도 자신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
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 예수님의 선언을 당신도 들었나요? 그리고 그 선언이 당신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나요? 그 때의
경험을 적어 보십시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금요일)

오늘의 본문 (요 4:27~38)

27. 이 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28.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들과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30.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31. 그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잠수소서
32.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33.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잠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대
34.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35. 너희가 녀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36. 거두는 자가 이미 샅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37.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38.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원문해석하기

- (27절) 바로 그 때 그의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Καὶ ἐπὶ τούτῳ ἦλθαν οἱ μαθηταὶ αὐτοῦ)
그리고 그가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καὶ ἐθαύμαζον ὅτι μετὰ γυναικὸς ἐλάλει·)
아무도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οὐδεὶς μέντοι εἶπεν·)
당신이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또는 왜 당신이 여자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τί ζητεῖς ἢ τί λαλεῖς μετ' αὐτῆς;)
- (28절)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 두고 그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ἀφῆκεν οὖν τὴν ὑδρίαν αὐτῆς ἠ γυνὴ καὶ ἀπῆλθεν εἰς τὴν πόλιν)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καὶ λέγει τοῖς ἀνθρώποις·)
- (29절) 어서 와서 한 남자를 보십시오 (δεῦτε ἴδετε ἄνθρωπον)
그는 내가 했던 모든 것을 나에게 이야기 해준 분입니다 (ὅς εἶπέν μοι πάντα ὅσα ἐποίησα·)
이 분이 그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μήτι οὗτός ἐστιν ὁ χριστός;)
- (30절) 그들이 마을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으로 갔습니다
(ἐξῆλθον ἐκ τῆς πόλεως καὶ ἤρχοντο πρὸς αὐτόν.)

- (31절) 그사이 제자들이 그에게 요청하여 말했습니다(Εν τῷ μεταξύ ἠρώτων αὐτὸν οἱ μαθηταὶ λέγοντες·)
 랍비여 드십시오 (ῥαββί, φάγε.)
- (32절)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ὁ δὲ εἶπεν αὐτοῖς·)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느니라(ἐγὼ βρωῶσιν ἔχω φαγεῖν ἣν ὑμεῖς οὐκ οἴδατε.)
- (33절) 그러자 제자들이 서로를 향해 말했습니다(ἔλεγον οὖν οἱ μαθηταὶ πρὸς ἀλλήλους·)
 누가 먹을 것을 그에게 가져다 주었는가?(μή τις ἤνεγκεν αὐτῷ φαγεῖν·)
- (3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λέγει αὐτοῖς ὁ Ἰησοῦς·)
 나의 일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의 일을 성취하는 것이다
 (ἐμὸν βρῶμά ἐστιν ἵνα ποιήσω τὸ θέλημα τοῦ πέμψοντός με καὶ τελειώσω αὐτοῦ τὸ ἔργον.)
- (35절) 너희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겠느냐?(οὐχ ὑμεῖς λέγετε)
 아직 네 달이나 남아 있으며 [그때야] 추수 때가 되리라
 (ὅτι ἔτι τετράμηγρός ἐστιν καὶ ὁ θερισμὸς ἔρχεται·)
 보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ἰδοὺ λέγω ὑμῖν·)
 너희의 눈을 들어라(ἐπάρατε τοὺς ὀφθαλμοὺς ὑμῶν)
 희어져 추수 때가 된 들을 바라보라(καὶ θεάσασθε τὰς χώρας ὅτι λευκαὶ εἰσιν πρὸς θερισμόν·)
 지금이니라(ἤδη)
-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샅을 받고 있고 영생을 위한 열매를 모으고 있다
 (ὁ θερίζων μισθὸν λαμβάνει καὶ συνάγει καρπὸν εἰς ζωὴν αἰώνιον·)
 [그결과] 씨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고 있다(ἵνα ὁ στείρων ὁμοῦ χαίρη καὶ ὁ θερίζων·)
- (37절) 그래서 이러한 경우 한 사람이 씨를 뿌리고 한 사람이 거둔다는 말은 진리다
 (ἐν γὰρ τούτῳ ὁ λόγος ἐστὶν ἀληθινὸς ὅτι ἄλλος ἐστὶν ὁ στείρων καὶ ἄλλος ὁ θερίζων·)
- (38절) 내가 너희가 노력하지 않은 그것을 거두게 하기 위해 너희를 보냈다
 (ἐγὼ ἀπέστειλα ὑμᾶς θερίζειν ὃ οὐχ ὑμεῖς κεκοπιάκατε·)
 다른 사람들이 노력을 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그 열매에 함께 하였느니라
 (ἄλλοι κεκοπιάκασιν καὶ ὑμεῖς εἰς τὸν κόπον αὐτῶν εἰσεληλύθατε.)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27절을 읽으십시오.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갔던 제자들이 우물가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상황에 매우 놀랐으면서도 아무도 “당신이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또는 왜 당신이 여자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의아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구절에서 사도 요한은 제자들이 속으로만 질문했지 실제로는 입밖에 꺼내지 않았던 어떤 사실을 굳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자세하게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당연히 이런 질문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묻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질문에 담긴 뜻이 도대체 무엇이었기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자세하게 명시해 놓은 걸까요?

첫 번째 질문은 여자를 향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구하다’라는 의미의 ‘제테이스(ἤταις)’라는 단어는 신분이 낮고 능력이 부족한 자가 자기보다 신분이 높고 능력있는 자에게 뭔가를 구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따라서 “여자여 당신이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라는 이 질문은 ‘한낱 사마리아 여자에 불과한 주제에 감히 유대 랍비이신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라는 질책에 가까운 말입니다. 답은 뻔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 랍비에게 구하여 얻을 수 있는 건 그 어떤 것도 없다는 뜻이지요. 지극히 부정적인 태도입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예수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에 대한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사마리아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그 여인이 진정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구하는 것은 당연히 자신을 포함한 사마리아인 전체의 온전한 회복에 관한 것일테고 예수님은 기꺼이 그것을 주시는 분이지요. (가끔 성경은 이러한 수사적 질문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비록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직접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질문의 필요성을 제시함으로써 진리를 선포하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을 향한 질문입니다. “왜 당신이 여자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라는 말에서는 사마리아인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뿌리깊은 멸시와 천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는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 다.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야곱의 후손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보다도 훨씬 천한 존재로 여겼습니 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 랍비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천한 사마리아인, 그 중에서도 천하디 천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나누실 수 있습니까?’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사실 요한은 제자들이 마땅히 질문할 만한 것을 질문하지 않았다는 말을 명시함으로써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세계관을 우회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이 말을 실제로는 감히 묻지 않았지만 이미 한 거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셈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대로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멸시받는 사마리아인들에게 기꺼이 먼저 다가간 것입니다.

이 두 질문에 대해 스스로 답을 만들어 보십시오. (앞서 며칠에 걸쳐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대답해 보십시오.)

첫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무엇을 구했겠습니까?

둘째, 예수님은 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했을까요?

28~30절을 읽으십시오. 제자들이 오자 여인은 우물가를 떠나서 마을로 들어 갑니다. 그곳에 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어서 와서 한 남자를 보십시오. 그는 내가 했던 모든 것을 나에게 이야기 해준 분입니다. 이 분이 그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 둔 채 마을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우물가에서 본 그 남자가 메시아 일 것이라고 확신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일이 있기 불과 얼마 전에 요한 자신을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마을에 갔었고 그들은 거기서 먹을 양식을 구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잠시 동안 얘기를 나눈 그 사마리아 여인은 그 길로 바로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해야 할 제자들은 마을에서 먹을 양식만 구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 물이나 떠드리고 먹을 거나 드리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여인은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일을 하나님의 일인양 착각하여 열심히 하면서 정작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교회의 일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기 보다는 이 세상의 삶에 너무 치우쳐 삽니다. 어떻게 하면 좀더 편안히 복을 누리며 살 것인가 그것을 위해 교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마치 먹을 것을 구하러 간 제자들처럼 말이지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가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전하는 그 여인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정말 당신이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나요? 아니면 신앙 생활이라는 미명 아래 자신의 안위에만 급급한 삶을 살고 있나요?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음식이 있다 (토요일)

오늘의 본문 (요 4:27~38)

27. 이 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28.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들과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30.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31. 그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잠수소서
32.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33.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잠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대
34.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35. 너희가 녀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36. 거두는 자가 이미 샅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37.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38.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원문해석하기

- (27절) 바로 그 때 그의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Καὶ ἐπὶ τούτῳ ἦλθαν οἱ μαθηταὶ αὐτοῦ)
그리고 그가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καὶ ἐθαύμαζον ὅτι μετὰ γυναικὸς ἐλάλει·)
아무도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οὐδεὶς μὲντοι εἶπεν·)
당신이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또는 왜 당신이 여자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τί ζητεῖς ἢ τί λαλεῖς μετ' αὐτῆς;)
- (28절)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 두고 그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ἀφῆκεν οὖν τὴν ὑδρίαν αὐτῆς ἢ γυνὴ καὶ ἀπῆλθεν εἰς τὴν πόλιν)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καὶ λέγει τοῖς ἀνθρώποις·)
- (29절) 어서 와서 한 남자를 보십시오 (δεῦτε ἴδετε ἄνθρωπον)
그는 내가 했던 모든 것을 나에게 이야기 해준 분입니다 (ὅς εἶπέν μοι πάντα ὅσα ἐποίησα·)
이 분이 그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μήτι οὗτός ἐστιν ὁ χριστός;)
- (30절) 그들이 마을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으로 갔습니다
(ἐξῆλθον ἐκ τῆς πόλεως καὶ ἤρχοντο πρὸς αὐτόν.)

- (31절) 그사이 제자들이 그에게 요청하여 말했습니다(Εν τῷ μεταξύ ἠρώτων αὐτὸν οἱ μαθηταὶ λέγοντες·)
 랍비여 드십시오 (ῥαββί, φάγε.)
- (32절)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ὁ δὲ εἶπεν αὐτοῖς·)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느니라(ἐγὼ βρωῶσιν ἔχω φαγεῖν ἣν ὑμεῖς οὐκ οἴδατε.)
- (33절) 그러자 제자들이 서로를 향해 말했습니다(ἔλεγον οὖν οἱ μαθηταὶ πρὸς ἀλλήλους·)
 누가 먹을 것을 그에게 가져다 주었는가?(μή τις ἤνεγκεν αὐτῷ φαγεῖν·)
- (3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λέγει αὐτοῖς ὁ Ἰησοῦς·)
 나의 일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의 일을 성취하는 것이다
 (ἐμὸν βρῶμά ἐστιν ἵνα ποιήσω τὸ θέλημα τοῦ πέμψαντός με καὶ τελειώσω αὐτοῦ τὸ ἔργον.)
- (35절) 너희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겠느냐?(οὐχ ὑμεῖς λέγετε)
 아직 네 달이나 남아 있으며 [그때야] 추수 때가 되리라
 (ὅτι ἔτι τετράμηγρός ἐστιν καὶ ὁ θερισμὸς ἔρχεται·)
 보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ἰδοὺ λέγω ὑμῖν·)
 너희의 눈을 들어라(ἐπάρατε τοὺς ὀφθαλμοὺς ὑμῶν)
 희어져 추수 때가 된 들을 바라보라(καὶ θεάσασθε τὰς χώρας ὅτι λευκαὶ εἰσιν πρὸς θερισμόν·)
 지금이니라(ἤδη)
-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샅을 받고 있고 영생을 위한 열매를 모으고 있다
 (ὁ θερίζων μισθὸν λαμβάνει καὶ συνάγει καρπὸν εἰς ζωὴν αἰώνιον·)
 [그결과] 씨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고 있다(ἵνα ὁ στείρων ὁμοῦ χαίρη καὶ ὁ θερίζων·)
- (37절) 그래서 이러한 경우 한 사람이 씨를 뿌리고 한 사람이 거둔다는 말은 진리다
 (ἐν γὰρ τούτῳ ὁ λόγος ἐστὶν ἀληθινὸς ὅτι ἄλλος ἐστὶν ὁ στείρων καὶ ἄλλος ὁ θερίζων·)
- (38절) 내가 너희가 노력하지 않은 그것을 거두게 하기 위해 너희를 보냈다
 (ἐγὼ ἀπέστειλα ὑμᾶς θερίζειν ὃ οὐχ ὑμεῖς κεκοπιάκατε·)
 다른 사람들이 노력을 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그 열매에 함께 하였느니라
 (ἄλλοι κεκοπιάκασιν καὶ ὑμεῖς εἰς τὸν κόπον αὐτῶν εἰσεληλύθατε.)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31~38 절을 읽으십시오. 이 일은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 두고 마을로 가서 마을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불러 오는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이 마을에 가서 구해 온 음식을 잡수실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느니라.” 이 말씀에 제자들은 적잖이 당황했던 모양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누가 그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는가?”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제자들이 ‘누가 그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는가?’라고 질문했을까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요 3:12)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들처럼 제자들의 관심도 오로지 이 세상의 일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마리아 여인보다 오히려 더 세상적인 일에 관심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세상의 일임을 모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혹시 당신은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개인적인 경험이 있다면 간단하게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34절을 다시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의 일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의 일을 성취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 일을 성취하는 거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나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 일을 성취하셨나요?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읽어 본 결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택하신 백성이란 단순히 유대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는 방법은 단 한가지였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었지요.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 오셨고 그 일을 하셨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은 완성된 구원, 온전히 성취된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35~38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추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여기서 추수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불러 모으는 행위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종말론적 시각으로 해석하는 분이 있는데 말씀을 해석할 때에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만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종말의 시작이고 우리는 아직 온전히 추수되지 않은 상태를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미와 아직 사이’라고 말합니다 (*already not yet*). 그러나 요한복음 4장에서의 추수의 의미는 엄밀히 말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추수는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이 사건에만 국한하여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 문장의 구조를 살펴보면 금방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28~30 절: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함

31~38 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함(추수이야기)

39~42 절: 사마리아 인들이 예수님을 친히 보고 믿음

이 단락의 구조를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사건 가운데에 추수 이야기가 들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썩을 양식을 구해왔습니다. 그사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복음을 전했고 그 여인이 마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썩지 않을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었지요.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가 노력하지 않은 그것을 거두게 하기 위해 너희를 보냈다. 다른 사람들이 노력을 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그 열매에 함께 하였느니라.”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자신의 말로 적어 보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부흥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면 자기들이 잘해서 그런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상 무임승차하는 것이지요. 당신은 어떠한가요? 38 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